

### 이흥재의 세상만사

## 콩으로 메주를 쏠대도 못 믿겠네



논설고문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향가(鄕歌)는 서동요(西童謠)다. 지은이는 어릴 적 이름이 서동(西童)이었던 백제 무왕(武王). 삼국유사에 노래와 함께 그의 사랑 이야기가 전해진다.

서동은 선화공주가 예쁘다는 소문을 듣고 사모한 끝에 신라 땅에 몰래 잡입한다. 그는 아이들에게 고무마와 비슷하게 생긴 마(蠟)를 공자로 나눠 주며 환심을 산 뒤 자신이 지은 노래를 부르게 한다.

노래의 내용은 다들 잘 알 것이다. 상당히 노골적인 이 '19금(禁) 노래는 이윽고 신라 궁중에까지 퍼지게 됐다. 왕은 기가 막혔다. 공주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놈과 비밀리에 만나 정사(情事)를 나누다니. 곧바로 공주를 궁궐 밖으로 쫓아냈다. 어머니가 선화공주를 감싸 주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아니 댐 굴뚝에 연기가 나느냐?"는 것이었다.

결국 쫓겨난 선화공주는 갈 곳이 없다. 성 밖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서동이 접근한다. 이어지는 사랑 고백에 공주가 훌쩍 넘어갔다. 그렇게

해서 함께 백제로 돌아간 서동은 임금이 되고, 공주는 왕비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서동은 결국 소문을 이용해 공주를 차지했다. 요즘 같으면 '유언비어 유포죄'로 철창에 갇혔을 지도 모를 일이다.

### 말들은 허공에 떠다니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온갖 뜬소문이 떠돌아다니기 마련이다. 이 중에는 독재 시절의 '카더라 통신'처럼 나중에 진실로 밝혀지는 것도 허다하다. 아무런 근거 없이 일부러 지어낸 유언비어도 많다. 5·18 당시 '간첩 침투설' 같은 경우가 그렇다.

유언(流言)은 글자 그대로 '흘러 다니는 말'이며 비어(蜚語)는 비어(飛語)와 같은 뜻으로 '날아다니는 말'이다. 원래 바퀴벌레를 뜻하는 '비(蜚)'는 날 '비(飛)'와 발음이 같아 예전엔 흔히 같은 뜻으로 쓰였다.

서동은 유언비어를 이용해 '여자'를 취했지만, 뜬소문을 퍼뜨려 '권력'을 차지하려 했던 이도 있다. 고려 인종 때의 권신 이자겸이다. 그는 '십팔

자'(十八子)가 왕이 될 것이라는 유언 비어에 편승, 반란을 일으켰다. '십팔자'(十八子)는 '이(李) 자의 파자(破字)다.

이성계는 유언비어로 나라까지 움켜쥔 인물이다. 위화도 회군 이후 당시 시중에는 '목자득국'(木子得國)이란 동요가 널리 퍼졌다. '목자'(木子) 역시 '이(李)의 파자'이니 '이씨 성을 가진 이가 나라를 얻는다'는 뜻이다. 이성계 세력이 역성혁명을 노리며 퍼뜨린 유언비어였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여섯달만 100일이 됐지만 온갖 의혹들만 켜켜이 쌓여 가고 있다. 당국은 사건 초기 유언비어를 억단하겠다고 국민들의 의혹 제기 자체를 차단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행방이 묘연했던 유병언(73·전 세모그룹 회장) 씨가 엇그제 백골이 되어 모습을 드러냈다. 뉴스를 보던 많은 사람들의 첫 반응은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는 거였다. 당장 '시체 바뀌기' 등 각종 음모론이 퍼졌다. 유전자 감식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유 씨가 도피 중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또한 온갖 억측을 불러 일으킨다. 메모는 거울에 비춰 봐야 읽을 수 있게끔 거꾸로 쓰여 있다. 과거 수감 생활 중에 배웠다는 일명 '다빈치체'다. 왼손잡이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글을 왼손으로 썼다 한다. 그것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거울에 비춰 봐야 제대로 읽을 수 있다고 해서 '거울 필법'(mirror writing)으로 불린다.

문제는 메모의 내용이다. "눈 감고 팔 벌려 요리조리 찾는다. 나 여기 선 줄 모르고 요리조리 찾는다. 기나긴 여름 향한 슬래집기가 시작되었다." 늘 헛다리만 짚고 있는 검찰과 경찰을 조롱하는 글이야 그렇다 치자.

"기녀리고 가날론 '대'(大)가 태(太)풍을 날지처럼 일으키지는 않았을 거야. 산전수전 다 겪은 노장인 남자들이 저지른 바람일 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 구원파에 따르면 유 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켜 '대'(大)로 자주 이야기했다고 한다. 산전수전 다 겪은 노장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을 가리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참모진의 과잉

총성 때문에 자신이 쫓기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보니 지난 5월 구원파 기자 회견장에 걸렸던 "김기춘, 갈 데까지 가 보자"라는 플래카드가 생각난다. 구원파의 본산인 금수원에는 또 김실장의 어록에 있는 '우리가 남이가'란 현수막도 걸렸었다. 그게 과연 김 씨가 '거울 필법'(mirror writing)으로 불린다.

### 책임지는 이는 하나 없고

어찌 됐든 검찰은 한 달 남게 유 씨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영통한 '꼬리 잡기'에 수사력을 낭비했다. 유 씨가 시신으로 발견됐어도 여전히 '시신 조작' '타살 의혹' 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유 씨가 시신을 바꿔치기한 뒤 해외로 밀항했다"고 말한다. "1년 뒤 해외에서 아이들의 시신을 찍는 손가락이 9개인 노인이 발견될 것이다"란 말도 떠돈다. '정가 연루설' 역시 여전하다. 발 없는 말이 천 리를 가더라고, 억측과 루머는 하루가 멀다 하고 퍼져만 간다.

유언비어는 왜 발생하는가. 불신 때문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견고하면 유언비어는 금세 사그라지지만 그렇지 않다. 조선시대 유언비어 때문에 사직 상소를 낸 이항복에게 광해군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유언비어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이르며 해소되는 법입니다." 이 말을 현시대에 맞게 바꿔보자. "유언비어는 지혜로운 정부를 만나면 해소되는 법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 정부의 꼬락서니를 보면 도통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없다. 지혜롭기는커녕 느려 타지기로는 나무에 매달린 늘보 수준이고, 귀가 어둡기로는 거의 사오정 수준이니 말이다.

경찰은 유 씨의 시신을 보고도 누구인지 알아채지 못했고 검찰은 별장을 수색하고도 밀실에 숨어있는 유씨를 찾지 못했다.

유언비어는 계속 떠돌고 뒷전에서 책임지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정부는 믿으라고만 한다. 한두 번도 아니고 또다시 정부를 믿으라고? 야이고,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쏠대도 못 믿겠네.

## 영암 F1, 내년 대회도 무산될 듯

멕시코, FOM과 5년 계약...참가도시 20곳 넘어 한국 탈락 가능성

멕시코가 2015년부터 포뮬러원(F1) 국제 자동차대회 개최 국가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F1 개최지에 멕시코와 아제르바이잔이 추가되면서 FOM(Formula One Management) 측이 전남도에 F1 개최를 강요할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다.

24일 F1조직위에 따르면 멕시코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CIE'가 최근 F1 대회 주최 측인 FOM과 2015년부터 5년간 대회를 개최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멕시코는 1992년 시즌

을 마지막으로 F1 대회를 개최하지 않아 23년 만에 복귀하게 됐다. 이에 앞서 아제르바이잔 역시 FOM 측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F1 조직위는 파악하고 있다.

F1대회 2015년 시즌 최종 캘린더가 연말에 확정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참가 도시가 20곳을 넘어지면서 한국은 내년 대회 캘린더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될 경우 만성저자 등의 이유로 F1 대회 중단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전남도 조직위

는 FOM과의 소송을 자연스럽게 피하면서 대회를 포기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회 중단에 따른 소송에 휘말릴 경우 계약 서상 전남도의 위약금과 소송비용은 최대 1억 달러 이상이 될 수도 있어 전남도 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소송을 피해야 하는 입장이다. 한편 민선 6기 전남도지사직무 인수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F1 대회 중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FOM과의 계약이나 소송 등을 고려해 2016년 개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구제역 차단 비상

3년3개월만에 경북 의성 발생...축사 방역·예방접종 등 예찰 강화

경북 영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한반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전남도가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24일 "지난 23일 경북 의성군 한 돼지농장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신고 가족에 대해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와 구제역 예방접종 상태를 재점검하는 한편 축사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도록 각 축산농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제역 발생은 지난 2011년 4월 경북 영천을 마지막으로 3년 3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지 2개월 만에 지위를 잃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농식

품부에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했으며,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구제역 증상을 나타내는 돼지 600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축사 내의 소독과 가축·차량의 이동제한 조치 등에 집중하고 있다.

전남지역은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번 경북 사례를 계기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올 들어 현재까지 구제역 항체 양성률 기준에 미달한 15곳의 축산농가에 대해 각각 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전국 첫 '자녀 안심 로봇' 보급

국공립 어린이집 3곳...출석 유무 전송·실시간 영상 제공 등 '新 도우미'



전국 최초의 '자녀 안심·안전 에이전트'가 광주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3곳에 보급됐다.

광주테크노파크는 23일 "2013년 로봇시범보급사업(지자체주도형)에 선정된 '클라우드기반 자녀 안심·안전 에이전트'이 서구 중앙어린이집과 북구 문화어린이집, 광산구 남성대어린이집 등 3곳에 2대씩 총 6대가 보급됐다"고 밝혔다.

이 로봇은 자녀의 등·하원 시 얼굴을 인식해 '무사히 유치원을 나갔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다. 또 내장된 유아용 콘텐츠를 이용해 교육의 일부분까지 담당할 수 있어 자녀와 유치원, 학부모를 잇는 새로운 개념의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된다.

지자체주도형 로봇보급사업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보육현장에서 자녀의 안심·안전에 대한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로봇산업의 시장 수요 창출을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 가전로봇지원센터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 기술을 높이고, 상용화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계획이다.

광주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시장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로봇 아이템 개발을 통해 광주시가 전국 서비스 로봇 시장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올해 최초로 시행하는 지자체주도형 로봇보급사업에 국비 3억6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임동률기자 exian@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 6/7층 라식센터
- 4/5층 수술센터
- 2/3층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밝은광주안과를 이끌어 갈 소중한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분 야 : 간호조무사, 검안사, 코디네이터(데스크,상담)  
조 건 : 성별, 나이, 경력 무관  
담당자 : 062) 351-9934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덕신 맞은편 눈보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기성고대출 전문취급금고**

땅은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신 분과 건설회사를 위한 대출!

- ▶ 차공부터 완공시까지 자금지원
- ▶ 대출한도는 최고 15억
- ▶ 토지에 기존 대출 있어도 가능

대출금 지급방법  
공사 기성에 의한 지급

기성고대출

상담시 구비서류

- 시설명세와 소요자금 명세
- 공사시방서
- 공사도급 계약서
- 도급업자의 도급공사
- 공사비목명세서
- 기성부분 보고서(기성고명세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에 임하겠습니다.  
담당 민 창원 과장 연락처 062)720-2828

**서양새마을금고**

**2013년도 경영평가 최우수금고 선정**

2013년 서양새마을금고 사랑 나눔  
날짜 : 2013년 12월 26일 장소 : 남구문예회관

총도리별 장학금 스와기 500가 2,400만원 100대  
독거노인 스와기 100대

다문화 가정 지원

이사장 안두경      전무 하현준

광주지역 자산1위  
당기순이익 1위  
출자배당금 5%

2013년 금고자산 → 2,607억원  
당기순이익 → 15억3천만원  
배당금 → 5.0% (현재 정(예)금 금리 1년 3%)

**서양새마을금고**

본점 671-5000    양림지점 652-9203    주유사업소 720-2880    월산지점 364-7557